■ 실속 재테크 저금리시대 틈새상품

이자에 이자 붙는 '月복리' 주목하라

물가 고공행진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한푼이라도 더" 은행권 월복리상품 출시 붐
스마트폰·온라인 전용 등 금리우대 상품도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왔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원금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매달 붙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월 복리 상품을 비롯해 금리우대를 해주는 스마트폰, 온라인 전용상품 등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푼이라도 더' 복리상품 잇따라 출시=기업은행이 이달 첫 월 복리 적금을 내놨다. 첫 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매월 10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1년제의 경우 연 3.1%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월복리 적금' 출시 200일 만에 가입고객이 4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연말까지 이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하는 '신한 월복리 적금 출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3년제로 기본 금리는 연 4.5%지만 이 기간동안 상품에 가입하면 종전 월 복리 적금의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5.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적금으로 환산해 보면 연 5.26%의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한다면 우리은행의 월 복리 상품도 좋다. 만기가 5년이지만 그 이후에 최대 5년까지 연 단위로 추가해 연금기간을 택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매월 적금금액이 지급된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이내로 금리는 연 4.1%다.

국민은행의 'KB국민 업 정기예금'은 기본 이율이 1개월 단위로 연 2.1%에서 연 5.8%까지 매월 계단식으로 상승하며 이자를 월 복리로 계산하는 상품이다.

◇온라인 공동구매, 스마트폰 예금을 잡아라=연 4%대 예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예금이다.

광주은행의 'U-스페이스 정기예금'은 가입금액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용상품으로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3000만원 이상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는 등 입금액에 따라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이 15일까지 판매하는 'e-플러스 정기예금'은 연 4.0% 금리를 적용해준다. 만기는 12개월로 가입 가능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다.

온라인 공동구매 예금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농협은 지난 9월28일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정기예금·적금 10-3호'를 판매하고 있다. 정기예금의 금리는 전체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200억원 이상 모집 시 12개월 만기 연 4.0%의 이자가 지급된다.

외환은행은 스마트폰 우대상품으로 '스마트폰 정기예금'을 선보이고 있다. 금리는 3개월 연 3.08%, 12개월 연 3.64%, 36개월 연 4.07%로 창구에서 예금가입 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배추 살 바에야 포장김치 사먹는게 낫다"

귀하신 배추값, 인건비 감안된 김치가격 추월

배춧값이 폭등해 '포장김치'보다 사실상 비싸졌다. 주재료인 배추·양념 값과 포장비, 인건비 등이 감안된 포장김치 가격이 배춧값에 추월당한 것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5일 배추 1포기(2kg)가 9200원에 팔렸다.

반면 종가집 포장김치 2.3kg의 소비자 가격은 1만7700원이었다. 100g당 가격으로 배추 460원, 종가집 배추김치는 769원인 셈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포장김치가 배추보다 비싸 보이지만 사정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배추 1포기에서 김치를 담그는 데 쓰는 부분의 비율(수율)은 70%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작황부진으로 품질이 낮아져 수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치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는 배추 100g의 실제 가격은 460원의 2배인 920원으로 볼 수 있다. 완제품인 포장김치 100g의 가격(769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김장배추 포기당 2000원"

농협 300만포기 예약 판매

12일부터 인터넷 선착순

농협이 김장배추 300만 포기를 포기당 2000원에 예약 판매한다.

농협은 6일 김장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장배추 300만 포기를 포기당 2000원에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약주문은 농협 NH쇼핑 홈페이지(www.nhshopping.co.kr)를 통해 1인당 9~12포기까지 할 수 있다. 예약물량은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농협유통센터(하나로클럽)를 통해 공급된다.

농협은 예약판매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배추 1000t을 목포농산물유통센터 등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30% 정도 싼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김장철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이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19만t으로 늘려 공급을 확대하고, 월동배추의 조기출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가 올해 여름 잦은 비로 인한 발육 부진으로 10~15일가량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배추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대도시 권역별로 임시 김장시장 개설해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김장김치 나눠 담그기·늦게 담그기 등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농협은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무 가격이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준고랭지 지역의 2기작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약 문의는 02-397-7026~9.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존권 걸린 대형마트 입점 결사 반대 6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크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이 광주 북구청 앞에서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북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북구청은 대형마트 인허가를 중단하고 건축심의 재실시, 주변상권 피해조사,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형 유통업체, 위해식품 회수 외면"

회수율 28% 불과…"자동차단시스템 참여 절실"

대형마트들이 위해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 애경플라자, 킴스클럽, 메가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식약청이 운영하는 위해식품판매자동차단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과 지자체가 수거검사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유통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등 단지 2개 업체를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달 현재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훼미리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총 유통업체 8곳과 전국 1만254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위해식품 회수율은 2008년 26.5%, 지난해 34%, 올해 6월 기준 28%로 낮은 수준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자동차단시스템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명품 수입신고 필증도 위·변조한 가짜 판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명품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조 또는 변조된 수입신고필증도 버젓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30일 해외 유명상표 의류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의류수입상 P씨를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P씨는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입신고필증에 신고되지 않은 유명상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입물량을 실제보다 5배로, 단가는 약 2배로 변조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 6월에도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E씨를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유명상표 의류 등을 파는 사람들 중에 이 같은 불법행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조사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시 게시된 수입신고필증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된다"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된 명품이 아니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